



6면

대주코레스, 김제자유무역지역 167억 투자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음 1월 19일) 제34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전북 지자체-대학 '맞손'

10개 대학 참여 'JST 공유대학' 출범... RIS 사업 본격화 미래수송·에너지·농생명바이오 등 신산업 인재도 키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한껏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기업과 협력하는 지역 산업 발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예측되는 이 사업에는 앞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년간 총 2,135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첫 사업인 'JST 공유대학'은 전북산학융합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을 공동캠퍼스로 두고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전북과학대 등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학부 3~4학년생 270명과 대학원생 60명 등 총 330명의 학생을 육성할 계획이다.

'JST 공유대학'에서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세 분야의 인재들이 집중 육성된다. △미래

수송기기 분야는 친환경미래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SW, 특수목적수송기기를 세부전공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세부전공으로 △농생명·바이오 분야는 디지털농업, 푸드테크, 메디컬바이오통을 세부전공으로 수업과 공동 실험실습 교육이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이같은 RIS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대학을 지역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 등이 이어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전북자치도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에 이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으로 오는 2025년 2월까지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관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커다란 관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됐다.

RISE는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

지원 체계다. RISE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크탱크로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RISE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정비해 RISE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 부서를 확대 설치했다.

대학 관련 정책수립부터 지역혁신사업(RIS),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담당한다.

전북 RIS를 주관하고 있는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 송치성 단장은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 RIS와 RISE 체계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사업이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혜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 전북도는 교육부 핵심사업인 지역혁신사업(RIS), 라이즈(RISE), 글로벌대학30에 모두 선정돼 지자체-대학 동반 성장을 견인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대학이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으으로써 지역과 지역대학 전체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행안부 차관, 도내 비상진료체계 현황 점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유지해야"

김관영 도지사, 정치권에 촉구... "국회서 결단 내려달라" 전북자치도의원 9명, 국회서 전북 10석 유지 촉구 농성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의결을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 선거구 10석 유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와 관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 축소 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전북지역 국회의원 최소 10석 유지 촉구'를 당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우리 도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소중한 특례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모으며 희망의 길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 중대한 시점

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열망을 대변할 국회의원 의석수가 축소되는 것은 특별자치도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특히 김 지사는 "더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북특별자치도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대비 2023년 인구수를 비교하면 전북보다 경북·경남 지역 인구감소가 더 많이 이뤄졌으며,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다.(경남8만9,000여명 2.67%, 경북8만15,000여명 3.23%, 전남 4만 8,000여명 2.56%, 전북 4만9,000여명 2.73%)

끝으로 김 지사는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위해 이제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를 10석으로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던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를 다시 살려내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9명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22대 총선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김재훈 기자

남원 대산·순창 동계, 청년농촌보급자리 공모 선정

올해부터 4년간 90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농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도내 남원시와 순창군이 27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도까지 전국 9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

는 전국 16개 시군이 경합해 최종 8개소가 신규 선정됐다. 사업지구에는 공공임대주택과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보육·문화·여가활동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며, 입주민들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 정책사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

발 지원 등이 이뤄진다. 선정된 사업지구에는 올해부터 4년간 총 90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국비가 50% 지원된다.

남원시는 대산면 2만171㎡ 부지에 단독주택 28동과 커뮤니티센터, 공동창고, 공동텃밭 등이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90억이다.

순창군은 동계면 1만6,039㎡ 부지에 단독주택 15동, 공동주택 1동 15가구, 공동육아 나눔터, 공유주방,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JBTP 전북테크노파크
JEONBUK TECHNOPARK

전북지역혁신플랫폼
Jeonbuk Region of Innovation Platform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유치, 대학은 인재양성, 지역산업 연계하여

전북을 일으킵니다.

대학이 살아납니다.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KSNU 국립순산대학교

KUNGSU 군장대학교
KUNGSU UNIVERSITY

WU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KHSU 원광보건대학교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USU 우석대학교

JNU 전주대학교

VISION College of Jeonju
전주비전대학교

CNU 전북대학교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KU 전북과학대학교

HJU 호원대학교
HOWON UNIVERSITY